



웰컴 투 뉴스 비즈니스

:저널리즘 소비지니스를 뒤집는 아랍 특파원 표류기

요리스 루엔데이크 지음 | 김병화 옮김

출간일 : 2011년 11월 18일

정가 : 14,000원

페이지 : 344쪽



1. 초짜 저널리스트, 아랍 특파원이 되다

“서구 관광객이 예멘에서 납치되거나, 정신적 지도자가 레바논에서 폭사하거나, 근본주의자 그룹이 바로 이 이집트 남부에 집결한다면 어찌 될까? 난 그런 일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될까? 뉴스를 켜보라고 말하겠지만 이제는 내가 바로 그 뉴스였다.”

대학 시절 1년을 이집트에서 보내고 시리아를 여행하기도 한 저자는 아랍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이 지역에 특파원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이전까지 미디어가 보여준 아랍과 실제의 아랍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한다. 이제껏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 왜 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한 초짜 저널리스트의 중동 표류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책은 이렇듯 이제 막 저널리즘 세계에 입문한 저널리스트의 치열하고 정직한 고민과 맥을 같이 한다. 그 답을 얻기 위해 저자는 제2차 인티파다와 9.11 테러 등 굵직굵직한 이슈를 쫓아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이스라엘 등의 국경을 부지런히 오가고, 모든 기자들이 꺼리는 초간장의 분쟁 지역 동예루살렘에도 머문다. 무장단체의 수장, 테러리스트의 가족과 희생자, 택시 운전자, 인권운동가, 정신분석의 등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진솔한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또한 초기 우왕좌왕하던 실수담부터 매너리즘에 빠져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온 사정까지,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풀어놓는다. 저자가 5년간 이 지역에서 직접 보고 겪은 일들이 흥미롭게 이어지며 미디어의 문제를 신랄하게 꼬집은 이 시대의 ‘아라비안나이트’이다.

2. 우리가 알지 못했던 99%의 아랍

“성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도 농담의 대상으로 삼을 줄 안다. 미국인 러시아인 이스라엘인이 각각 한 명씩 알림판 앞에서 있다. “죄송합니다, 재고 부족으로 오늘은 고기가 없음.” 미국인은 말한다. 부족하다는 게 뭐지? 러시아인은 말한다. 고기가 뭐지? 이스라엘인은 말한다. 죄송하다는 게 뭐지?”

저자는 검은 옷을 두르고 총을 들쳐 멘 단 하나의 이미지로 대변되는 아랍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다. 기아에 찌든 수단인 사람들도 저자가 손을 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고 외치자 수줍게 웃는다. 테러가 일어난 날에도 시장에서는 토마토가 특가로 판매되고 있다. 이방인 남자를 두고 여성들은 아랍어로 몰래 수다를 떠다.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스포츠, 직업, 섹스를 대화의 주된 주제로 삼고 사회 풍자가 담긴 농담을 주고받는다.

“야세르는 바지에 수없이 난 총알구멍을 손가락으로 만졌다. 재킷은 윗부분이 없었다. 이스라엘군이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의 몸이 수류탄으로 갈기갈기 찢겼기 때문이다. “난 이걸 어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막 나가려다가 나는 왜 아버지가 함께 오면 안 됐는지 물어보았다. “아버지는 간신히 버티고 계세요, 이 옷을 보면 총알구멍이나 이 찢어진 재킷을 보면...., 아버지는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저자가 확인하는 현실의 방점은 ‘이처럼 우리와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토록 우리와 다르게 살고

있다'는 데에 찍힌다. 거기에는 자폭 테러를 일으키고 죽은 형의 총알구멍이 송송한 옷을 차마 버리지 못하는 동생이 있고, 미국 진출에 부풀어 말실수를 한 번 했다가 몇 달을 지겹도록 '보고'를 해야 했던 젊은 밴드가 있고, 행여 아이가 학교에 가서 부모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할까 봐 저녁 식사에서 정치 이야기를 못하는 부모가 있다. 저자는 이처럼 지금껏 미디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아랍의 온전한 모습들을 독자들에게 전하며, 왜 이런 모습들이 다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3. 우리는 왜 웃고 있는 아랍인을 보지 못했을까?

-저널리즘 소비즈니즘을 발가벗긴 5년의 중동 취재

“나는 셰러턴 호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 홍보기구의 매끄러운 강철 표면을 처음 보았다. 이스라엘 정부도 조작에 능했지만 이제는 디즈니월드를 창조해낸 자들이 숨씨를 부리는 것이다. 정글에서 가장 힘센 원숭이는 쿠웨이트에서만 설치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러나 이 책이 미디어를 조작하는 배후 세력을 운운하는 음모론이나 기자들이 기자 정신이 부족해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는 데 게으르다는 비아냥거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보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현장 체험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준다.

그 일례로 책은 잔인한 폭력을 자행하게 있음에도 서구로부터 옹호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제 땅을 빼앗기고도 테러리스트의 이미지를 면치 못하는 팔레스타인의 오랜 분쟁을 깊이 다루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 기구는 권력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해 여론을 우호적으로 이끌 수 있는 유명 인사의 존재 자체를 경계한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폭탄을 터뜨릴 때마다 관련 자료를 대대적으로 쏟아 붓고, 기자들에게 통역사를 제공하고, 팔레스타인이 자행한 만행을 담은 ‘블랙북’까지 제공한다. 기자가 두 눈으로 확인한 사실을 고국의 독자와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인터뷰이가 필요하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의 입은 ‘오프더레코드’일 때나 열린다. 매일매일 제공되는 뉴스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각국이 주는 자료에 의존해야 하니, 팔레스타인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뉴스는 이스라엘의 시각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팔레스타인은 또 다시 ‘유대인들을 죽인’ ‘테러리스트’가 된다.

책은 이처럼 독재 정권과 서구 정부들, 상업 미디어들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뒤틀려버린 뉴스 산업을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9.11 테러와 제2차 인티파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을 읽는 새로운 시각을 얻는다.

4. 재스민 혁명 이후의 아랍, 그리고 우리의 저널리즘

“이전의 문제와 고통스러운 정도로 비슷한 점이 있다면, 일방적인 서술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반체제 시위자들은 자신들의 투쟁을 웹에 올리고, 거의 자동적으로 그들의 시각이 유일한 시각이 됐다. 아마디네이드를 지지하여 표를 던진 이란인도 수백만 명은 되지만, 서구의 청중들이 그들의 동기에 대해 듣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2006년 네덜란드에서 이 책이 첫 출간된 이후 아랍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저자는 소위 재스민 혁명이라고 말하는 시민 저항 운동을 따라 충실하게 침언한다. 이집트에는 정부에 규제받지 않는 진정한 독립 신문이 창간되었고, 전 세계적 경향 그대로 인터넷과 SNS 발달이 이 지역의 미디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자는 그러나 여전히 외신 뉴스에 등장하는 아랍의 이미지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고, 서구가 자행하는 술수들은 여전히 은폐되어 있음을 우려한다. 무엇보다 시민 저항 운동을 전하는 새로운 미디어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저항 운동의 일부인 SNS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여전히 한쪽의 입장만이 과잉 전달되는 상황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가 수단의 막사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 순간부터 아랍을 떠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이슈들을 비추어 볼 수 있다. 저자가 맨몸으로 부딪쳐 전하는 아랍 이야기들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책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되어 온 미디어 필터링과 왜곡의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미디어 프레임 밖의 온전한 우리 모습을 읽는 기회를 얻는다. 신문을 정독하고, 지정 뉴스까지 다 봐도 우리 사회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이유에서부터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기자들의 답답한 마음까지 여기서 만나는 것이다.

저자 소개

요리스 루엔데이크 Joris Luyendijk

암스테르담 대학과 카이로 대학에서 사회과학과 더불어 아랍어를 공부했다. 대학 시절 시리아를 여행하고, 이집트에 머물던 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방인의 눈으로 본 이집트 사회에 대한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 책이 인연이 되어 저널리스트로서의 경력이 전무한 그가 아랍 지역 특파원으로 파견된 것이 《웰컴 투 뉴스 비즈니스》의 출발점이다. 이후 저널리즘의 비대한 살집 뒤에 숨은 양상한 골격을 드러내는 메타 저널리스트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2002년 the Golden Pen, 2006년 De Journalist가 선정하는 올해의 저널리스트를 수상했고, NVJ(Dutch Association of Journalists)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저널리스트 4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틸부르흐 Tilburg 대학에서 21세기를 위한 저널리즘을 가르치고 있다.

윤진이 김병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고고학과 동양철학을 공부했다. 꼭 읽고 싶은 책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읽고 싶은 마음에서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여 나온 책이 《행복할 권리》, 《증언: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회고록》, 《첼리스트 카잘스: 나의 기쁨과 슬픔》, 《세기말 비엔나》, 《트리스탄 코드》, 《신화와 전설》, 《과리, 모더니티》, 《장성, 중국사를 말하다》, 《나머지는 소음이다》 등 여러 권이다. 같은 생각을 가진 번역자들과 함께 번역기획 모임 ‘사이에’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